



삼화·이기선

# 오늘의 재해는 병든 역사의 업보

## 위정자도 백성도 세월을 바로 보아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 오늘의 불교

●

### 재해

<劫濁·겁탁>

12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겨우살이를 하느라고 온갖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또 한번 크게 놀랐다.

마포 아현동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건이 난 것이다. 이걸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위적 사고다. 인재의 역난이다.

이렇게 되어도 된다는건가. 사건의 연발이다. 약연이 한 통속이 되어 천지사방에 악업이 자행되지 않는 곳이 없다.

온종 겁화(劫火)가 함께 휘몰아치고 불운이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매몰차게 안겨 주고 있다.

지금 온갖 악세(五濁惡世) 인가. 오락에는 겁탁, 견탁, 반탁, 종생탁, 명탁이 있다. 겁탁이란 무엇인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기근, 전쟁으로 인한 시간, 수명장단의 재해의 의미이다. 전쟁, 재난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겁탁이란 역사적 재해가 아닌가. 역사적 재해란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 역사인식을 흐리게 하여 아전 인수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운용하면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른뒤에 그 책임성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 안녕을 보장하라

역사는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중생이 아무런 장애나 핑박을 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처자의 입장에 선 사본만이 호의호식하고 모든 백성을 종부리듯 혹사하고 가벌하였던가. 그 역사는 진리에 비껴간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생명이 깃들어야 하고 생명이 깃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백성들의 시간이고 세월이다. 세월이 어떠한지 물어볼때 그 세월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세월속

역사를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의 관계에서 부딪침은 인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겁탁이란 역사가 병든 것이다.

선대 역사가 병든것이라면 명약한 것은 후대의 세월이 무참하리라는 것이다.

**청정한 역사를 만들자**

역사를 맑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움직여 온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불의를 살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덕하고 불의한 일군의 정쟁배가 그 세월속에 음흉농활하면서 허장성세를 구가하였다면 끝장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허장성세처럼 부끄럽고 가소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빈양철이다. 소리만 요란하지 어디 담겨 있는 실물이 있느냐. 우린 왜 빈양철을 귀따깝게 두들기며 알만 노를만 하고 있었는가. 겉(劫)을 볼 줄 아는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니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겉을 감시하는 자 제정을 견제하여야 한다. 겉은 역사이고 세월이다. 겉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겁탁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된다. 역사는 대와와 같다. 한번 밀려오는 큰 불살은 방파제로 막을 수 없다. 흐리고 맑고 혼물스런 역사라면 사람도 흐리고 악에 물들고, 흉악범으로 변화인이 되고 만다. 우리가 지금 온종 삼재팔란을 겪고 있는 것은 겁화의 악귀에 놀아나는 업보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청정케 하는 개인이 나와야 한다. 아첨을 주머니가스가 새어나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을 쳐도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다. 아무튼 가스에 팔든 권귀신의 변명인가, 당장 가스관을 막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아불사 할동안 폭발은 서울을 놀라게 하였다. 겁탁의 불길은 방관으로 풀수 있을까.

역사를 함부로 무조건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상호의 관계에서 부딪침은 인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겁탁이란 역사가 병든 것이다.

선대 역사가 병든것이라면 명약한 것은 후대의 세월이 무참하리라는 것이다.

**청정한 역사를 만들자**

역사를 맑히는 일을 하여야 한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움직여 온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불의를 살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덕하고 불의한 일군의 정쟁배가 그 세월속에 음흉농활하면서 허장성세를 구가하였다면 끝장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허장성세처럼 부끄럽고 가소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빈양철이다. 소리만 요란하지 어디 담겨 있는 실물이 있느냐. 우린 왜 빈양철을 귀따깝게 두들기며 알만 노를만 하고 있었는가. 겉(劫)을 볼 줄 아는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니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겉을 감시하는 자 제정을 견제하여야 한다. 겉은 역사이고 세월이다. 겉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겁탁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된다. 역사는 대와와 같다. 한번 밀려오는 큰 불살은 방파제로 막을 수 없다. 흐리고 맑고 혼물스런 역사라면 사람도 흐리고 악에 물들고, 흉악범으로 변화인이 되고 만다. 우리가 지금 온종 삼재팔란을 겪고 있는 것은 겁화의 악귀에 놀아나는 업보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청정케 하는 개인이 나와야 한다. 아첨을 주머니가스가 새어나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을 쳐도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다. 아무튼 가스에 팔든 권귀신의 변명인가, 당장 가스관을 막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아불사 할동안 폭발은 서울을 놀라게 하였다. 겁탁의 불길은 방관으로 풀수 있을까.

역사는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중생이 아무런 장애나 핑박을 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처자의 입장에 선 사본만이 호의호식하고 모든 백성을 종부리듯 혹사하고 가벌하였던가. 그 역사는 진리에 비껴간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생명이 깃들어야 하고 생명이 깃들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백성들의 시간이고 세월이다. 세월이 어떠한지 물어볼때 그 세월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세월속

# “셔터 누르는 찰라엔 나도 선객”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휩싸여 가는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낡은 배낭에 오랫동안 길들여 온 카메라를 필름통 옷가지를 챙겨 넣고 급속성 준비들을 단단히 점검한 다음 다시 지도를 펼쳐보는 조문호씨. 그는 사진 찍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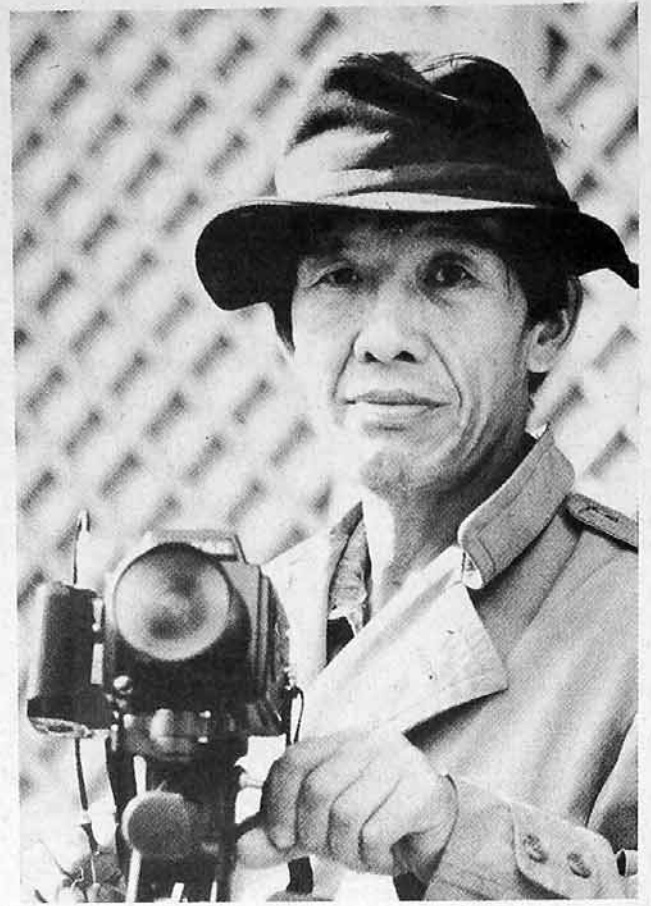
사진계에서는 나름대로 독보적인 영역을 넓혀 온 것이지만 출사를 나갈 때는 언제나 신인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올 겨울 그는 앙상한 숲 속에서 만년 사할들과 하얗게 눈덮인 문화재를 생각하며 또 한차례의 여행을 하러

면서 주점도 문을 닫게 됐다. 생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타고난 재주와 감각이 그에 게는 가능성으로 늘 남아 있었기에 식물을 거느리고 상경까지 하게 됐다. "서울 생활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다. 그래도 몇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거치면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은 됐다는 것이 돌아켜 보면 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뜻 부처님 가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가톨릭 신도였다. 86사이판게 날 사할들과 하얗게 눈덮인 문화재를 생각하며 또 한차례의 여행을 하러



## 산문박의 11월

### 사진작가 조문호

는 것이다. 그의 여행은 외롭다. 수행 자처럼 그는 외로운 여행길을 묵묵히 떠나는 것이다.

"인문란 이후 10여년간 줄곧 사회다큐멘터리에 열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렌즈에 담아 내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10년이란 시간을 통해 저는 인간의 삶이 갖는 아름다움과 슬픔을 실컷 맛봤습니다."

사진은 정직한 예술이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찍고 찍힌 대로 작품이 인화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진 예술인 것이다. 그의 10년에 걸친 작업은 우리 사회의 '있는 사실'들을 담아내는 것 자체였다. 그 속에서 그는 인간성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 작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90년 이후이다. 그는 더이상 생활의 언저리를 찾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텅 빈 주제를 바꿔 버린 것이다. 4년간 그는 사할을 다니며 사할에 깃든 것과 가르침을 찍어 오고 있다.

우리 것에 대한 타고난 애착심과 이제 나만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10년 작업을 평가하게 했다고 말한다.

"처음 사진을 찍게 된 것은 최민식 씨(원로사진작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할 다큐의 1인자로 꼽히고 있는 분이죠. 제가 부산 남포동에서 한바탕이란 주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그분의 작품집(인간)을 얻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원래 극영화와 출신인 그는 작은 주점 주인이었다. 그런 그가 우연히 얻어 본 최민식씨의 사진집은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점을 경영하며 사진을 찍게 됐고 점점 사진에 빠져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대표하는 사진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전을 가진 이후 그는 불교와 사찰과 문화재란 주제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포시켰다.

그리고 그는 불교에 귀의했다. 사진 찍는 사람은 기계조작 보다는 대상물에 대한 연구와 탐닉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불교공부를 하다가 아예 귀

## 불교사진에 매료, 세례명 던지고 귀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고요, 그 찰라 속의 영감들이 저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때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단번에 전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가는 산사는 그의 수행처이고 그곳에서의 작품활동은 수행의 과정인 셈이다.

의 했다는 것이다. 통도사 측사암의 수안스님 앞에서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던지고 진공(眞空)이란 법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의 감격은 평생 잊

을 수 없다고 말하는 조씨. 그는 사진 찍는 순간만큼은 선객이 된다고 말한다.

"대상물을 정하고 카메라를 통해 그 대상물을 들여다 보는 순간의 긴장감과 셔터를 누르기 직전의 순간의 고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찰라 속의 영감, 이 모든것들이 저를 선객으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때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단번에 전율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런 때는 반드시 관찰은 작정이 나오요. 물론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찾아가는 산사는 그의 수행처이고 그곳에서의 작품활동은 수행의 과정인 셈이다.

"언젠가 석굴암으로 촬영을 갔었습니다. 관광객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려다가 찍으려고 석굴암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마침 예쁜 시간이 되더군요. 어느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천년 신비의 미소를 찍으려는데 저는 사진을 찍기보다는 무수히 절을 했습니다. 그 고요한 본존불의 미소와 스님의 독경소리가 마치 어느 연산화시의 한 가

운데 제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했던 것입니다. 예쁜이 끝난 뒤에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대상물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가 신상삼머져 흥행 물든 상태에서는 무말할 것 없이 예술의 혼을 일깨우는 경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화염사 각황전의 새벽 분위기를 찍으며 법당을 가득채우는 새소리들에 매료되어 반쯤 넘어 나간 상태에서 셔터를 눌렀던 기억도 되살리며 "불교에 귀의 한 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올 겨울 그는 또 우리의 산하를 떠돌며 계획이다. 깊은 산골을 헤매다 만나는 산사에서 스스로 선객이 되어 셔터를 누르고 넓은 들을 쓰다듬어내는 고졸한 탐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수행의 열력을 느낄 것이다.

— 가장 찍고 싶은 사진은 어떤겁니까.

▲ 내 마음을 찍는 것입니다. (염연태 기자)

# 성도절 봉축 성지순례

- 순례기간: 1995년 1월 4일 ~ 1월 18일(14박 15일)
- 동참금: 178만원
- 일 정 표

일 자	방 문 지	일 정
제1일	서울 / 불매이	서울 출발 / 불매이 도착
제2일	불매이 / 바라나시	인도문, 웨일즈박물관 등 불매이 관광후 바라나시로 이동
제3일	바라나시	켄지스강 일출 감상 후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순례
제4일	바라나시 / 보드가야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로 이동, 금강보좌 순례
제5일	보드가야	성도절 봉축 범회 참석-보리수, 니련선화, 마하보디사원 순례
제6일	보드가야 / 라지گیر / 파트나	보드가야 출발, 영취산, 죽림정사, 나란다불교대학터 순례
제7일	파트나 / 바이살리 /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방문후, 부처님의 일만지인 쿠시나가르의 일만당 순례
제8일	쿠시나가르 / 롬비나 / 발람푸르	네팔입국, 부처님 탄생지인 롬비나 방문 후 인도 재입국
제9일	발람푸르 / 락나우 / 델리	발람푸르 출발, 기원정사와 사위성 순례후 락나우 경유 델리 도착
제10일	델리	클타미나르 인도문 앞 칼리다송 델리 관광
제11일	델리 / 아그라	아그라로 이동, 아그라성, 인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 방문
제12일	아그라 / 산치 / 보팔	산치로 이동, 산치 대탑 방문 후 보팔 출발
제13일	부사발 / 델라 / 아잔타	부사발 도착 후 델라, 아잔타 석굴사원 방문
제14일	오랑가바드 / 불매이	오랑가바드 출발 / 불매이 도착 후 불매이 시내 관광
제15일	불매이	불매이 출발 / 서울 도착 * 성불하심시오 *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HVECHO ADVENTURE TOURS, LTD.

## 헤초 여행사

국외 여행업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제604호 | 대표전화 (02) 544-1533

- 여행조건
- 1급 호텔(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 제공(성지 지역은 한식 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명
- 전문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불교에 대한 광범적 관심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활하는 비관신사

##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째 뒤엎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이나,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려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著,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직원모집  
경력 1명(女) · 관리 1명(男)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본 1봉 · 이력서 1봉

도시운주사 | 서울 종로구 청진동6번지 | ☎ 02-720-9372 · 3팩 02-723-0646

불자님께 드림

## 광명보시

### 인간방생하는 광명회를 펴며...

구세대비(救世大悲) 원력(願力)은 인류 생존에 불생불멸의 발보리심(發菩提心)이 나온다. 불생불멸의 발보리심을 추구는 인간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 살겠다는 원력(願力)은 스스로 대도(大道)를 알고 자신의 과과를 자초하므로 범미의 시달림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화식 연료의 과잉 사용과 태양계 온실효과의 변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아 수중에 도둑, 눈병 환자, 눈 잃은 자가 임의는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불자가 광명보시 인간방생을 위해 나서야 함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번 광명회는 불자들의 뜻을 모아 눈 잃은 자는 개인수술로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만 자는 각막 이식 수술로 광명보시 인간방생을 베풀며, 각막·수정체 기증을 받는 '세 생명 공양 대한력 사업'을 세워 불교교단 봉사단체를 결속하는 운동을 펴려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며 갈급한 주위의 흙이 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사회를 위해 어떤 대 원력을 펴고 삶을 살아야 할까? 밝은 눈 잃은 개인수술·각막 이식수술과 심명자를 위한 사후 눈 각막기증 및 생전에 신장 부전증으로 고통 받는 자를 위해 콩팥을 기증하는 광명보시 인간방생, 이 대한력을 실천하려는 모든 불자들의 헌신적 협조와 동참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청교연 진주지부 부설 총재 권관웅 큰스님  
회장 박현상 스님  
헌 바라는 광명회 회장 박현상 스님  
김기원 교수

\*사무실-경남 진주시 강남동 1-14 Tel (051)751-3384, 758-6611, Fax 758-6611